

존 오스왈트 박사, 이사야, 세션 30, 이사야. 63-66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63장부터 66장까지의 30회기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종 우리 형제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에 열려 있고, 당신의 영으로 인도되고, 당신의 영으로 영감을 받은 이 사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7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그분을 통해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당신의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더 명확하게 적용하여 우리가 참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밤에는 60장부터 62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한 책의 마지막 부분의 중간 부분은 기술적인 용어인 교차교차(chiasm)입니다.

그리고 책의 중간 부분은 장이고 교차점의 중간 부분은 60-62장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의 목표, 즉 의로운 이방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우리는 그것을 2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공부하는 동안 여러 번 말했지만 이사야서는 교향곡입니다. 교향곡의 특징은 이러한 주제가 표면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다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중 하나가 6장에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실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속에서 그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분의 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실제로 사람들 자신, 즉 불의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불의한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위해 있어야 할 모습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한 전사, 즉 원수, 제가 주장한 대로 죄의 원수를 물리치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밤 이 세 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뛰어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한데 모아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작업에서는 이 자료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의견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종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문제를 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죄 많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러 오는 순수하고 거룩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해결책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험을 국민 전체가 겪을 때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7장부터 39장까지에서 어떻게 신뢰가 종됨의 기초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류, 인류의 국가를 대신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보았습니다.

인류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라는 주제가 어떻게 이사야와 구약 전체에서 신뢰의 공통 동의어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멜이 알아냈어요.

기다리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는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 우리 자신의 이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이루시도록 허용할 때입니다. 39년이 끝날 무렵에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님을 봅니다. 히스기야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특히 여기 11장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정부를 어깨에 메고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그래서 40-55장에는 종노릇의 은혜와 동기와 수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40-48에서 우리는 그 동기를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이다. 그들이 죄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신만이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동기입니다. 공로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그냥 무시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무시하신다면, 원인과 결과로 세워진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이 종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단입니다.

동기는 40에서 48입니다. 수단은 49에서 55입니다. 55가 끝날 때쯤에는 전달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연은 기뻐합니다. 무엇이 남았나요? 이제 11개의 챕터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움이 종들에게 기대되는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펴본 종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56 대 66입니다. 이것이 제가 책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책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는 방법이다. 이 제안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잠깐만요, 오스왈드'라는 것입니다. 1~39장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테마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글썄, 나는 책이 어디로 가는지 때문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40~66년에는 매우 분명하게 백성의 섬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안할 때 책의 이전 부분이 어떻게 그로 이어지는지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내 말은, 30주를 다 마쳤는데 머릿속에 이런 게 없다면, 난 좀 깜짝 놀랐다는 뜻이에요. 질문? 코멘트?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관찬은.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그 구절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덮으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다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가 떠오르는 빛으로 올 것이다. 이제 나는 그것을 59장 9절, 10절, 11절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빛을 바라고 어둠을 봅니다. 밝음을 원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 걷습니다.

우리는 장님처럼 벽을 더듬습니다. 우리는 눈 없는 자들처럼 더듬습니다. 우리는 황혼 때처럼 정오에도 넘어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으르렁거립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신음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바라지만 정의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이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것들 사이에 대조가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제 변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둘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오나요? 구속자.

신성한 전사. 59, 15b부터 21까지의 전체 부분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이며 59, 9, 10, 11부터 61, 1부터 3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통과시키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비춘다? 단 한 가지 방법은, 신성한 전사가 와서 그들과 우리를 사로잡은 죄와 불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평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59장의 실패와 이전의 실패, 그리고 60장의 실패 사이에 의도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이고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나는 잠시 동안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59, 15b부터 21까지 일부러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백성을 불의에서 의로 옮기실 사람이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왜 중재할 사람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팔이 그를 구원하였고 그의 의가 그를 불드셨느니라. 그는 의를 흉배로 입으셨습니다.

예? 응, 계속해. 그들은 그 구절로 무엇을 합니까? 의도한 연결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말하는 59개가 있고, 다른 것을 말하는 59b, 15b에서 21이 있고, 또 다른 것을 말하는 61과 그 다음이 있고 그들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기에 했던 연설들을 모아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제발 다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문적 성경 연구는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주로 신자로 시작하여 대학에서 신앙을 잃어 자신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지한 사업입니다.

자, 이제 빛과 영광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게서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의했고 그들이 정말로, 정말로 일했고, 정말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로, 정말로 행했고, 그들이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그런 말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에게 비치는 이 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선물입니다.

자, 빛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3절, 열방은 네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은 네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빠릅니다. 응, 또 뭐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원죄로 돌아가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괜찮지만 독선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제 4-14절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져갈 물건은 두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부.

응, 너희 아들 딸들아. 이것이 두 가지 주요 사항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아들딸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40장부터 전체 내용을 기억한다면, 문제는 추방이 우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전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제국에 흡수되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배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민족들 곧 너희를 억압하던 나라들이 와서 너희 자녀를 데려오리라 메리 조, 당신은 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3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위한 사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로 그분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그를 찾을 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 저는 단지 까다롭다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제 제 메시지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궁극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아주 부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 한, 그분의 성령께 반응하는 한, 그분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 당신은 일관되게 '잠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배우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말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말하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겁을 먹고 도망갈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응,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예. 예. 그렇죠. 예.

좋은. 예. 이제 그들은 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걸까요? 9절. 여호와를 경외하라.

해안지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날 기다려. 41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땅끝이 나를 기다린다.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성격과 본성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9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을 끌어당기는 무언가를 봅니다. 그리고 질문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는 어디에 쓰이게 될까요? 특히 13절을 보십시오. 성소를 장식하십시오. 예.

그들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와서 등불에서 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경이로움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램프에서 나오는 빛.

그들은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2장으로 돌아갑시다. 너무 프로그래밍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여러분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주님의 집의 산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 둘은 함께 간다. 그들은 예배 장소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성소에 오기를 원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곳에 오고 싶어합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문구의 마지막 두 발생입니다.

9절과 14절에서요. 전에도 말했지요. 우리는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문구는 어떤 두 가지를 의미합니까? 여기에는 서로 얽혀 있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분리. 하지만 이별 그 이상입니다.

관계. 그래서 한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대편. 그는 완전히 초월적입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별개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물과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좋다 (좋아요. 성격.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전에도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쓰여진 성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은 루돌프 오토(Rudolf Otto)라는 독일 학자가 쓴 『거룩한 이념』 (The Idea of the Holy)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거룩함을 이런 종류의 분리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라틴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싶을 때 항상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신비 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

왜 그 엄청난 미스터리를 말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가 그것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그는 numinous라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아시다시피, 뚜렷하게 거룩한 인물이 있는 곳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초월적인 본질과 그의 초월적인 성격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가 그 캐릭터를 공유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ی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이 내 성격을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문구가 이 책에 25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 한 번 나오는 야곱의 거룩한 자도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는 26번이군요. 무엇을 의미 하던지.

성경 전체에 나오는 31번의 사건 중 26번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제 이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9절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십시오. 해변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며 다시스의 배들은 먼저 너희 자녀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되 그들의 은금도 함께 데려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이름은 그가 너를 아름답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14절. 너를 학대하던 자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고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 앞에 절하리로다. 그들은 너를 여호와의 성, 여호와의 성,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부를 것이다.

즉, 그들은 이러한 뚜렷한 관계로 인해 당신이 별개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자. 1장 4절.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보십시오.

누가 좀 읽어주세요.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죄악 진 백성이요 행악의 무리요 부패한 자식으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노를 격동시켰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전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우와.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작한 곳입니다.

그것은 5장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였다. 이제 3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아, 옳은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세요. 환상을 예언하십시오. 길을 떠나라, 그 길에서 벗어나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관해 더 이상 듣지 말자. 나는 이제 12절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닥치길 바라나요? 글썄,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해 줄게. 경멸하고 그를 화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30장 1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안식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우아함. 환상을 실현시키려고 서두르지 말고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쉬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37장 23절입니다.

산헤립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비난하고 모독했습니다.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대적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친구여, 당신은 여기서 누구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히스기야를 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유다의 그 지역 신을 조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유다의 신이군요.

그러나 그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41장 14절.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는 너희를 돕는 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곳에서 거룩한 자를 폐쇄하려고 하는 곳으로, 앗수르가 거룩한 자를 조롱하고 많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그들의 구속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전체에는 거룩한 자, 곧 너희 구속자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당신에게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구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성소에 영광을 돌리러 올 것이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15~22절입니다.

그 백성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제자들이 올 때.

그러면 16절의 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26.1은 당신에게 구원의 성벽이 있는 견고한 도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0.18은 당신이 당신의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당신의 문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미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좋아요, 그들은 그 사람과 함께 갇혀 있어요.

좋다 (좋아요. 또 뭐야? 벽은 일종의 구원의 투구와 같습니다. 좋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은 당신의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찬양합니다. 그 이미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칭찬 항목입니다.

뭐라고요? 좋아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찬양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견고한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를 둘러싸준다는 점에서 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분과 관련된 우리 삶의 입구이자 출구입니다. 그런 종류의 이미지는 성경을 경건하게 읽을 때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표면을 가로질러 빠르게 움직이기 쉬우며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당신의 벽은 구원입니다. 응, 알았어. 다음 구절은 뭐야? 따라서 시에서 특히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작가가 그런 종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21절입니다. 네 백성은 모두 의로울 것이다.

6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서 58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너희 백성이 모두 의로울 것이라고 말할 때,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실제 조건인가, 아니면 단지 선언에 불과합니까? 위치? 좋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Candice. 우리는 58년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 전체에 관해 '아니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확실히 칭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입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색안경을 통해 당신을 보시고 당신을 의롭다고 보십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당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글쎄요, 요점을 놓치네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분히 선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하지.

당신과 나는 우리의 관계, 행동, 삶의 방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길, 믿음으로. 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품의 변화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성품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행위이고, 지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니요, 둘 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더 이상 원수가 아닌 아들딸이 된 새로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괜찮은. 네 백성은 모두 의로울 것이다.

내 심기의 가지. 이제 그 문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기의 가지.

1장에서 사람들은 곧 휩쓸 불에 연약한 메마른 숲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나무의 언어가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나무는 오만할 수도 있고, 강직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 주목하세요. 이제 61장 1부터 3까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라고 요청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보기를 바랐던 핵심은 성령에 대한 동일한 강조점입니다.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논의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 그분의 삶을 사실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완벽하게 확신하고 있고 완벽하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완벽하게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 얼굴 보고 싶어, 알지? 그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존, 여기서 옳은 일을 합시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내려움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은 정말로 메시아이십니다.

왜 영이 나에게 임하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의 이단 중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삼위일체의 제2위이셨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무 것도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이사야서 61장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제 기름부음받은 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기에 나열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그는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가난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누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말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부자들은 그것을 일종의 핑계로 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회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모가 책 전체에 걸쳐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서 그 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를 보내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의사를 보냅니다. 좋아, 그 사람은 또 뭘 할 건데?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또 뭐야? 포로들을 위한 자유. 또 뭐야? 죄수들을 석방하십시오. 죄수들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에는 이런 맥락에서 복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지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알고 팔복을 듣는다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응.

그리고 저 언덕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저는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는 그가 콧물을 흘리며 거리를 뛰어다니던 어린아이였을 때 그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희미한 심령 대신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오.

이제 내가 오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3절에 나오는 후자의 진술입니다. 그는 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주님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의의 상수리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기억? 그가 심은 가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심으신 것입니다. 응. 그는 우리를 나무로 만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인 남부 농장이 아니라 나무 농장입니다. 뿌리깊고, 결실이 많으며, 생산적입니다.

축복. 그것이 그의 목표입니다. 통회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재에 대한 아름다움입니다.

예. 재를 위한 아름다움. 그리고 다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온의 아름다운 여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장신구를 가지고 함께 연결된 발목 팔찌를 차고 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쟁기질된 들판을 걷고 있지만 약간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수놓은 띠 대신에 밧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머리스타일 대신 대머리가 생길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재를 위한 아름다움. 우리 불의의 재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의 재. 우리 실패의 재. 그의 아름다움.

문제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비탄과 슬픔 때문입니까? 내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나는 그것이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처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흥미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슬픔과 슬픔을 번역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질병과 고통에만 국한시키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종류의 것이라고만 말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질병, 슬픔을 자신

안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성금요일 묵상을 할 때 이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서너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슬픔, 공포, 비극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피땀 한 방울 흘리며 하나님께 다른 길이 있는지 여쭙었던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순교하러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친구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겁쟁이? 안 돼. 안 돼.

그에게 올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유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덕 반대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61.1-3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것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의의 상수리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 의미에서 그것은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들은 고대의 폐허를 건설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의 황폐함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황폐한 도시들, 여러 세대에 걸쳐 황폐해진 도시들을 복구할 것이다.

낮선 사람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돌볼 것이다. 외국인들이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너희를 억압하던 그 사람들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위해 당신의 비천한 일을 할 것입니다. 왜? 6절, 이는 너희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당신을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라들의 재물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영광을 자랑하리라 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언약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장에서요? 너희가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고, 상비군에 의해 독립이 보장되는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망명에서 돌아왔지만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은 독립된 국가가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되어야 할 세상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때부터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아,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들은 아직도 그 신권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억압자였던 억압자들이 당신의 비천한 종이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알았어, 조금 더 밀어붙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10절입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음으로다.

그분은 나를 의의 옷으로 덮어 주셨습니다. 신랑 이 제사장처럼 아름다운 머리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땅이 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의와 찬송이 모든 나라 앞에 돌아나리라 이제 RSV나 NRSV,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NIV가 있다면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많은 곳에서 특히 여기 11절에서 옹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 앞에 의로움과 찬양이 솟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NLT는 그렇지 않습니다. NLT가 옳았습니다.

옹호와 의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옹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신학적인 독서가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가 나라들 앞에 솟아날 것입니다.

시온을 위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의가 빛 같이 나타나며 그 구원이 햇불 같이 나타나기까지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자, 알겠습니다. 자정 이전에 당신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페어링에 주목하세요. 페어링이 아니라 페어링 중입니다. 내가 히브리 시에 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요점이 두 번이나 동의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구원과 짝을 이룹니다. 이제 그들 각자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신성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의롭게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여러분도 나만큼 훌륭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 아,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서로에게 알립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믹스가 있습니다.

좋아요, 몇 가지만 더 지적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 남은 구절들에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들이 당신의 의로움을 볼 것입니다.

모든 왕들은 당신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영광이 짝을 이룹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리라.

당신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해당 테마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28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푸른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술 취한 자들의 머리의
면류관이로다. 당신은 주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버림받지 마세요.

이전에 등장한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너는 헵시바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응, 아니면 헵시.

우리 딸 엘리자베스의 별명을 사용할지 결정하려고 할 때 Karen이 Betsy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니요, Betsy라는 소가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통과하라, 문으로 통과하라. 백성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세요. 성구 색인을 사용하여 이사야서에서 대로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세요. 일부 버전에서는 배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호 깃발.

저거 좀 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그의 상이 그에게 있느니라.

그 앞에 그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당신은 찾는 사람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은 도시. 예.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의롭게 되도록 하신다. 피가 옷을 더럽히는 신성한 전사.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당신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로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위에 함께한 요즘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 중 일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당신에게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John Oswalt입니다.

이사야서 63장부터 66장까지의 30회기입니다.